

남동구, 소래포구축제 기간 문화누리카드 사용처 확대

남동구와 남동문화재단이 오는 26~28일 열리는 '제25회 소래포구 축제'에 문화 소외계층의 참여 기회를 높이기 위해 문화누리카드 사용처를 대폭 확대한다.

문화누리카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관광, 체육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복권기금으로 운영된다.

18일 남동문화재단에 따르면 이번 소래포구 축제 기간에 평소 문화누리카드 사용이 어려웠던 식·음료 등이 한시적으로 결제가 허용돼 카드 이용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더욱 풍성하게 축제를 누릴 수 있게 됐다.

이는 축제 주관자인 남동문화재단과 인천문화재단의 협업을 통해 성사됐다.

축제장 내 문화누리카드 사용처는 '문화누리카드 사용 가맹점' 안내 이미지가 부착된 ▲체험 부스 30개소 ▲아트 플리마켓 30개소 ▲푸드트럭 13개소 등 모두 73개소로, 지난해 58개소에서 15개소가량 늘어났다.

가맹점 확인은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나 인천문화누리 카카오톡 채널에서 가능하다.

이번 축제에는 어린이 보트 낚시, 소금 놀이터, 갯벌 놀이터 등 체험 프로그램과 함께 K-Culture, ESG, 예술 체험 부스, 소래 아트 플리마켓 등 문화 행사가 운영된다.

또한, 서해안풍어제와 열린 노래자랑, 인천대학 동아리 페스티벌 등 지역 특화 공연과 함께 박서진, 어반자카파 등 유명 가수들의 축하 공연도 펼쳐진다.

웅진군 노인복지 수행인력

대상 워크숍 개최

(재)웅진복지재단(이사장 문경복)은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농협은행 ㈜인천웅진군지부 지정기탁금)으로 18일부터 19일까지 2일간, 송도 센트럴파크 호텔에서 노인복지 수행인력 워크숍 '마음챙김 힐링캠프'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웅진군 내에서 맞춤형돌봄서비스를 수행하는 생활지원사, 전담사회복지사, 노인일자리사업 전담인력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현장 인력의 심리적 소진 예방과 회복탄력성 강화를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정신건강 자가관리 교육 '내마음 지킴서' △집단상담 프로그램-공감토크 '마음, 놓아도 괜찮아요' △선택형 힐링 프로그램(컬러테라피, 아로마테라피) 등이 진행됐다.

워크숍 참여자들은 "동료들과 함께 공감하고 위로받는 소중한 시간이었으며, 다시 현장으로 돌아가 힘을 낼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문경복 이사장은 "현장에서 감정노동과 돌봄 스트레스를 겪는 노인복지 수행 인력들이 스스로를 돌보고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었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지역복지를 실현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바이오기업 해외진출 지원 美 ‘MTC Ignite 워크숍’

9월 15일부터 19일까지 유타대에서… 규제·상업화·투자 전략 집중 교육
기업 맞춤형 전문가 강연·피드백·투자자 네트워킹 등 실전 중심 프로그램 운영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9월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미국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 유타대학교에서 '인천 바이오기업 해외진출 지원' 참여 기업 3개사를 대상으로 미국 'MTC Ignite Workshop 프로그램'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인천시가 추진하는 '인천 바이오기업 해외진출 지원 사업'은 올해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총사업비 20억 원을 들여 인천테크노파크와 유타대학교가 협력하여 세계 최대 바이오헬스 시장인 미국 진출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번 미국 'MTC Ignite Workshop 프로그램'은 참여 기업 3개사가 앞선 단계에서 배운 기초 지식을 실제 실행 가능한 단계로 전환하는데 초

점을 두었다.

현지에서는 전문가 강연, 1:1 컨설팅, 투자자·임상의·업계 리더와의 네트워킹 등을 통해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 발표 행사(Pitch Event)를 열어 참여 기업이 시장 포지션을 점검하고 피드백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의료기기 기업에 필요한 규제, 보험, 판매 전략 등에 대한 집중 교육을 통해 미국 시장 이해도를 높이고, 잠재 투자자, 파트너, 자문단과 교류 기회를 마련하여 산업계 네트워킹을 강화했다.

아울러 유타대학교 의료혁신센터(Center for Medical Innovation)는 식품의약품(FDA) 인허가 절차, 미국 법인 설립 전략, 상업화 방안 등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구체적인 기업별

실행 계획 수립을 지원했다.

5일간 현지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업들은 미국 시장 동향과 주요 이해관계자들의 기대에 대해 명확히 이해할 수 있었으며, 규제 대응·상업화·투자 유치 전략에 관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남주 시 미래산업국장은 "인천 바이오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 준비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피드백과 미국 산업 생태계 내 전문가 네트워킹 확대가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인천의 의료기기 산업 및 바이오 생태계 구축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9월 18일 영종도 소재 더위크앤리조트에서 창업기업 간 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한 '2025 창업도약패키지 비즈링크(BizLink)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2025년 창업도약패키지 선정기업과 졸업기업 33개사, 투자기관·유관기관 관계자 등 총 80여 명이 참석했으며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선언 ▲기업 우수사례 발표 ▲리더십 특강 ▲비즈니스 매너 교육 ▲분임토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협력 네트워크 확대와 참가자들의 역량 제고와 교류 활성화가 기대된다.

심하린 기자

미추홀구, 추석 맞이 자동차 무료 안전 점검

미추홀구(구청장 이영훈)는 오는 2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송의2동 제7노외주차장(미추홀국민체육센터 옆)에서 구민을 대상으로 '자동차 무료 안전 점검 및 정비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에는 보조 사업자인 세인천전문정비사업조합 미추홀지회 소속 회원 30여 명이 참여해 엔진오일, 냉각수, 에어컨, 브레이크, 조향장치 등 차량의 주요 항목에 대해서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냉각수, 워셔액, 와이퍼 등 소모품을 무상으로 교환해 주고, 차량 실내 탈취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행사 당일 미추홀구민은 사전 예약 없이 자동차등록증을 지참해 현장에서 접수하면 점검을 받을 수 있다.

이영훈 구청장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귀성길 안전 운행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라며, "많은 구민께서 차량 점검을 통해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내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중구, 찾아가는 자원순환교실 운영

중구(구청장 김정현)는 인천협사이클에코센타와 협업해 올해 4월부터 9월까지 관내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2025 찾아가는 자원순환교실'을 생활리에 운영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찾아가는 자원순환교실'은 자원순환에 대한 어린이들의 이해를 높이는 데 목적을 둔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지난 2월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진행한 수요 조사 결과에 따라, 총 13개 학교 66학급 1,488명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프로그램은 자원순환 강사가 교실을 직접 방문해 재활용 분리배출과 자원순환의 중요성 등에 대해 80분간 수업

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무엇보다 학생들의 호기심과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임무(미션)형 놀이교구인 '초록별 지구 배달부 보드게임'을 활용하는 등 '참여형 수업'을 운영함으로써, 교육 효과와 만족도를 모두 높일 수 있었다.

중구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분리배출과 자원재활용에 대해 즐겁고 쉽게 배우며 자원순환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라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으로 자원순환 교육을 진행하고, 교육 효과 극대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하린 기자

양사면 민통선 검문소 CCTV 디지털 검문

박용철 군수"주민 불편 해소 위해 첨단 검문시스템 도입 확대할 것"



해 협의해 왔으며, 그 결과 '민통선 출입체계 개선 사업'을 확정·추진하게 되었다. 총 1억 5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양사면 민통선 주요 도로에 CCTV를 설치했으며, 공사는 9월 중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10월 중부터 주간에는 대면 검문 없이 출입이 가능해지며, 야간에는 조명과 동일하게 대면 검문이 유지된다. 정확한 시행날짜는 추후 공지될 예정이다.

설치된 CCTV는 강화군 CCTV 통합 관제센터와 연계되어 출입 차량뿐 아니라 주요 도로 상황을 실시간으로 관제한다. 이를 통해 범죄 예방과 긴급상황 대응 등 안전 관리 기능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이번 사업으로 주간에는 대면 검문 없이 양사면 지역 민통선 출입이 가능해져 주민과 관광객의 통행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점검지역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첨단 검문 시스템 도입뿐 아니라 다양한 시책들을 확대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심하린 기자

인천광역시교육청·서울시교육청 교육장단, 학생맞춤통합지원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18일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장단과 동암초등학교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2026년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전면 시행을 앞두고 양 교

육청 간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상돈 인천시교육청 부교육감과 서울시교육청 교육장단은 인천동암초등학교를 방문해 선도학교 운영 사례를 공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또한, 학교에서 진행된 학생맞춤통합지원 활동의 성과를 발표하며, 학교와 교육지원청 간의 소통 강화, 교직원 업무 부담 완화, 협력 문화 조성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과제를 논의했다.

이번 방문으로 양 교육청은 학생맞춤통합지원 정책의 내실을 다지기 위한 협력 기반을 구축했다.

특히 인천의 선도학교 운영 경험이 서울 교육장단과 공유하며 법 시행에 대비한 정책 실행의 구체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인천의 학생맞춤통합지원 선도학교 사례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이 실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심하린 기자

베이밸리 Bay Valley

대한민국 신경제 지도를 그린다!

